부처님 가르침으로 행복 기준 재설정을…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㉝〈밀린다팡하〉 2

〈밀린다팡하〉는 불교를 만난 많은 이들이 지니는 궁금한 모든 질문을 부처님과의 인연 속에서 각각의 사연을 담아 파노라마처럼 펼치며 인생의 해답을 주는 상쾌한 책이다. 불자라면 이 경전을 반드시 읽어보라 권하고 싶다. 이미 한글로 잘 번역된 책이 많으니 푸른 하늘로 구름이 흐르는 것처럼 세월가는 것이 아쉬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도 돌아볼 겸, 한 번 만나보시길 권한다. 몇 년전 나는 BBS신행상담을 했었는데 그 때 내 손에 항상 들려 있던 것이 바로 이 책이었다. 모든 이들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그들의 인생에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4개의 틀로 이루어졌다. 제1장은 〈서론〉으로 메르난데스왕과 나가세나 스님의 전생스토리를 통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으로 시작된다.

제2장은 〈대론의 시작〉이다. 메르난데스왕이 평생동안 궁금해 하던 불교에 관련된 궁금증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장장 3일간 멈추지 않고 서로 대론(對論)하였다고 한다. 나가세나를 만나자 왕은 '나는 세상의 현자라 부르는 이들을 만나 많은 대론을 해보았지만 그들을 보고 놀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만나니 너무나 압도적인 느낌 때문에 놀랍고 두렵다. 왠지 불길하다. 오늘은 아무래도 내가 패하고 스님이 승리할 것 같다. 오늘은 왠지 불안하다. 아무렴 어때, 그동안 궁금한 했던 일에 대한 답은 온전히 들을 수 있으리라. 아, 마음이 왜 이리 떨리는 것일까?'

첫 질문이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부르는가, 그대의 행동의 주체는 무엇이냐였다 . 또 그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오온으로 존재하느냐고 꼬치꼬치 묻자 나가세나는 바지라라비구니의 시를 한 편 소개하며 연기법으로 답을 합니다.

"마치 여러 부분이 모이므로 '수레'라는 말이 생기듯 다섯 가지 구성요소(五蘊)가 존재할 때, 생명 있는 존재(有情)라는 이름이 생기노라."

왕은 나가세나에게 대론을 계속하겠냐고 묻자 나가세나는 현자의 입장으로 한다면 언제나 환영하나 왕의 입장에서 청한다면 거절하겠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자는 토론을 통해 성숙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답도 수용하지만, 왕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왕은 스님의 영특함에 미소를 지으며 왕이 아닌 현자로 대론을 청했다. 목 마른 이가 물을 마시듯이 왕의 입에서 끊임없는 질문이 나오고, 스님의 지혜로운 답이 속속 등장한다. 영혼이 있는가, 출가는 왜 하는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지혜는 무엇이며 완성될 수 있나, 해탈하면 지식이 사라지는가, 해탈한 이도 고통을 느끼는가. 개인존재의 형성력은 무엇인가. 업과 업의 존재를 증명하라, 인격의 평등과 불평등에 대하여, 불교의 우주론, 부처님은 실재하는가, 열반하신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출가자에게 육신은 소중한 것인가. 불교의 실천적 성격에 대하여, 부처님의 모습에 관해서, 부처님은 지혜와 계행을 지닌 최고의 인격자다. 해탈을 얻은 이의 생존에 관해서, 신통력을 가진 이의 능력, 수행의 목적에 대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더 나쁘다. 신통력과 마음의 자재력과 심리현상에 관하여 분석을 하며 대론을 마친다.

제3장은 〈불교에 지녔던 모순된 생각을 정리하는 대론〉이다.

부처님은 전지자인가, 데바닷다는 왜 출가했는가, 왕이 눈을 보시한 사건에 대해 말하라. 부처님은 지은 모든 죄를 소멸하고 부처님이 되셨는가. 교단의 규정은 버릴 수 있는가, 죽음에 대한 공포. 보시의 장애, 부처님의 추종자들이 갖는 아집에 대해, 사리신앙에 대해, 실성한 사람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자살금지, 여자의 마음, 거짓말의 경중, 최상의 의사인 부처님, 존경과 비난에 대하여, 스승 없이 홀로 깨치신 부처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왕은 맺힌 원결을 풀 듯, 모든 해답에 만족했다.

제 4장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한 질문으로 재가자와 출가자의 차이, 단식고행의 포기와 난행의 실천, 선악의 과보, 꿈, 열반의 경지, 무소유에 관한 가르침 등을 끝으로 불교의 의문에 대한 대론이 끝난다. 이 경에 등장한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평소 우리 삶의 방식과 관점을 바꿔 행복의 기준을 재설정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

〈서울 반야사 주지〉

탐·진·치 벗고 '위대한 존재' 깨달아야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㉜금강경식 지혜에 이르는 길

현대를 살아가다보면, 뜻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CEO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절체절명의 난제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현실 앞에 인류 전체는 모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무엇이 근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금강경식 지혜에 이르는 첫 단계는 자신이 부처님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구족의 진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실제로 시시각각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시겁으로 지어온 죄업 즉 탐진치로 인하여,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차단되어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탐욕심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 소멸하는 것입니다. 탐욕심으로 말미암아 무한 능력의 소유자에서 열등한 존재로 타락하였기에, 이 탐욕심이 소멸되면서 자신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로 다시 회복되고 각종 능력이 발현하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은 마음 밖의 모든 현실이 자신의 선입견의 표현임을 아는 일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 다음은 현실을 만든 이 선입견이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이라는 공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선입견을 구체적으로 닦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루 24시간 오로지 선입견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색(色)에 취해서 살고, 식(食)에 취해서 살고, 잠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탐·진·치에 취해서 살고 있으며, 부귀영화에 취해서 살고 있으며, 처자식에 대한 애정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평이라는 마약에 취해서 무능해졌고, 오만이라는 술에 취해서 무지해 졌습니다. 취해서 사는 삶은 음주하면서 제 정신 잃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주함으로 잘 보이던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각종 사고를 내듯, 우리가 취해서 사는 삶은 스스로가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임을 망각하게 하고, 스스로 탕자가 되어 각종 고난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부처님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되 습관적이나 타성적으로 하지 말고 원을 세워서 하라."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실천행은 무슨 뜻인가?

바로 취함에서 벗어나 제 정신을 차려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씀씀이에서 벗어나 부처님 마음이 되어보라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삶에서 벗어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타성적으로 살 때, 또 이기적으로 살 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각을 바칠 때 제 정신이 차려지고 취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와같은 〈금강경〉의 부처님 가르침과 함께 한다면 세상의 어떤 난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생활선(生活禪) '이 뭣고'

참선(參禪)은 무슨 생각이 일어나건 그 한 생각을 발판으로 해서 '이 뭣고'로 돌아 오는 것이다. 육조 스님의 일행삼매에 "일상시(日常時)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직심을 행해야 한다. 마음에 아첨하고 굽은 생각을 갖고 입으로만 법의 곧음을 말하지 말라, 오직 직심으로 행동해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一行三昧)라 한다"고 하였다.

직심은 순수한 마음이요, 분별을 떠난 마음이며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소리에 접하되 그 소리에 구속되지 않는 마음이며, 어떤 형상을 접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마음이다. 자신이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삼매를 실현하고 지혜를 발현하는 일, 공부, 운동 등 일체처 일체시에 어디에서도 '이 뭣고'로 걸림이 없고 분별, 집착을 끊으면 그것이 생활선의 실현이고 평상심의 시도인 것이다.

남악 회양선사께서 마조 스님이 항상 좌선만 고집하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 하루는 좌선중인 마조 스님에게 물었다.

"수좌는 좌선만해서 무엇을 하려는고?"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자 회양 선사는 앞뜰서 벽돌을 하나 집어와 마조 스님 앞에 놓고 앉아 정진하기 시작했다.

한참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여쭈었다.

"스님, 벽돌을 갈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 "망념인 한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제 8아뢰야식에 저장된 전생 업식을 재연 못하도록 그 한 생각의 뿌리를 '이뭣고'로 잘라내고 사(邪)가 아닌 반야지혜를 살려 쓰는 것이 참 수행"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면, 좌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를 수레에 매서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쳐야 옳을까 아니면 소를 때려야 옳겠는가?"

마조 스님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그대는 좌선(坐禪)을 배우는가, 좌불(坐佛)을 배우는가?"하고 다시 물었다.

"앉아서 참선 하는 것을 배운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데 있는 것이 아니니 선을 잘못 아는 것이고, 앉은 부처를 배운다면 부처님은 어느 하나의 법이 아니니, 자네가 부처님을 잘못 알고 있음이네. 무주법(無住法)에서는 응당 취하거나 버림이 없어야 하네. 그대가 앉은 부처를 구(求)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고, 앉은 모습에 집착 한다면 선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네"라고 말했다.

그러자 마조 스님은 여기서 크게 뉘우치고 좌선만을 고집한 생각을 버리고, 행주좌와 어묵동정 가운데서 일여(一如)하게 화두를 참구하여 순일(純一)을 이루어서 마침내 크게 깨쳤다.

우리가 생활속에서 망념(妄念)인 한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제 8아뢰야식에 저장된 전생의 업식을 재연 못하도록 그 한 생각의 뿌리를 '이뭣고'로 잘라내고 동시에 사(邪)가 아닌 반야지혜를 살려 쓰는 것이 참 수행이 된다. 즉 번뇌가 사라진 청정한 본래의 자기로 회향하게 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00번지 (오정산 백봉사)
■ 종무소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 054)571-6973 / 054)571-1030 / 054)571-7497 / 팩스 054)571-7498
■ 한국불교방송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107 예림빌딩 606호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는 신라시대 5교9산의 선문(禪門)전통에 따라 비로서 종문(宗門)이 개창(開創)되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천태, 조계종을 필두로 종파(宗派)가 설립되어 제종파(諸宗派)가 제각기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불조(佛祖) 혜명(慧命)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해 오다 조선조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제종을 통합하여 오다가 그후로는 조계종(曹溪宗)만의 단일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제종파 시대가 열리고 또한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교 수 많은 종단이 창종되고 소멸되고 이제 그 실체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자료제공과 신문과 방송, 불교언론에 널리 홍포코자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승(宗承)을 선양하니 해동대한민국에 불일(佛日)이 중휘하고 자비광명이 삼천리 강토에 비추리라. 이와같이 종지 종풍으로 일가를 성립할 수 있어 각기 종명을 세우고 이 땅에 불일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국불교 조계종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방송신문사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606호 / 전화 1670-2012